

## 대학입시 기도 축원

2015학년도 수험생들이  
맑은 정신으로 시험에 임하며,  
원하는 대학에 원만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동참!!!

● 백일기도 : 15만원 ● 합격인등 : 5만원(1년)  
\* 매일 사시불공시 스님께서 정성껏 축원 · 기도드립니다.

\* 금일(10.4) 동국대논술고사 합격 특별기도 접수를 받습니다.  
★ 특별축원기도 10:00 / 13:00 / 16:00 ★

### 토요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한글창제의 주역, 신미대사
- 법 사 : 현장스님 (대원사회주 · 티벳박물관장)
- ♪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0.11(토)	가을빛 사찰순례 ( 부여 : 무량사,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 )	
10.18(토)	담마토크	회일스님 (전주 참종은우리절)
10.25(토)	나의 신행이야기(토크)	공영대 (동국대 학사지원본부장)

###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일정 :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시 30분부터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 금일 수업은 교내 입시 관계로 휴강하며,  
다음주 10월 11일(토)도 사찰순례 관계로  
입문반, 교리반, 수행반 수업을 휴강합니다.

### 신도회 입출금 내역 (9/1~9/30)

내 용	수 입	지 출	잔 액
이월금			7,998,524
신도회비	1,433,000		
7월동참금 보시금	2,340,000		
공양미,양초판매	1,015,000		
쌀, 양초 구입		420,000	
불단 떡 과일		1,466,000	
추석 떡		600,000	
7월관련비용		1,325,990	
바자회, 조의금		500,000	
봉사부식사		115,000	
<b>총 합계</b>	<b>4,789,677</b>	<b>4,426,990</b>	<b>8,359,534</b>

## 가을빛 사찰순례

만연한 가을, 사찰순례에 함께하실 신도님을 모십니다

- 일 시 : 불기2558. 10. 11(토) 08:00~
- 장 소 : 부여(무량사,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
- 참가비 : 40,000원
- 대 상 : 정각원신도 누구나
- 신 청 : 법당 앞 안내(선착순)

신도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만65세 이상의 신도님은 신분증 지참해주세요)

☎ 정각원신도회, 사무실(2260-3017)

종교인들의 토크神공

## tvN 오마이갓

스님, 목사, 신부님이 함께하는 토크, 오마이갓  
자비명상의 대가 마가스님을 tvN에서 만나요!



소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번뇌 리셋,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  
(채널 : 서울지역 17, 20번 등)

### 보시동참

#### 9월 29일 불전 공양

₩ 1,203,000원

강은희, 권혁채, 김광한, 김남옥, 김동상, 김종관, 김희년, 남창강, 노승희, 박성진, 박영순, 송달선, 양승문, 원서준, 윤호문, 이기형,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옥희, 이재철, 장세남, 정규화, 조분옥, 주호빈, 주호성, 최석규, 최선자, 최인규,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489,000원

(법사비, 토요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팔정도 보시

권혁채, 김혜숙, 이기영, 이지연, 이창학

#### 공양 보시

❖ 불단과일 : 김홍희

❖ 불단 떡 : 김현숙, 한정민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65일 108배 릴레이정진  
동참 연인원은 현재 4852명 입니다.**



#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발기 2558(2014)년 10월 4일 제261호(週刊)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땅히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 지나친 욕망은 괴로움을 낳는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 불유교경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건학108주년기념관

“**건학108주년기념관에서 동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동국대학교 제2건학을 발원하며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불사로 혜화문 도로 평면 7층(면적 8,194평 약 450억)의 규모로 불교·전통문화 체험시설 및 대중문화 콘텐츠 전시시설 등 세계인과 함께하는 불교 복합 문화공간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동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뜻 깊은 여정에  
우리 불자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 건학108주년기념관

#### 선포 및 후원의 밤

- 날 짜 : 2014. 10. 8(수)
- 시 간 : 19:00~
- 장 소 : 그랜드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  
(동국대 혜화문 옆)

주관 : 대외협력본부, 정각원  
☎ 2260-3794~5

## 신임조교 수계법회



● 9.26(월) 신임조교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행교육·수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학업과 더불어 조교소임을 맡은 재학생들이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신행의 첫 단추를 끼는 뜻 깊은 법회가 되었습니다.

## 동불 연꽃제



● 10.1~2(수,목) 불교대학 학생회에서 원장스님을 모시고 「동불 연꽃제」를 팔정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건학 108돌을 기념하여 천도재, 컵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동국인과 함께, 불교를 널리 알리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 한글창제의 주역, 신미대사

현장스님 ( 대원사 회주 )

## < 초청법사 : 현장스님 >

### 現) 티벳박물관장, 대원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1975년 송광사 구산선사를 은사로 출가	1982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월간 「해인」 창간,
1984년 서울 법륜사 불일회보 불일출판사 편집주간	2년간 편집장 역임
1991년 대원사 주지 취임	1988년 곡성태안사 청화스님 문하에서 2년간 수선 안거
2001년 대원사 티벳박물관 설립 (현.관장)	2006년 아시아 문화교류재단 설립 (현.이사장)

## 1.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지난 2002년 제2차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한글이 1위를 차지했다. 2009년 제 1차 대회 때도 1위를 차지했다니 2연패를 이룬 셈이다. 한글은 세계의 언어학자들에게 놀라움의 문자이다. 언어의 제작 동기와 제작시기, 제작자가 밝혀져 전해지는 문자는 우리 한글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다. 국보 선정은 일제 때 이루어 졌다. 선정이유는 임진왜란 때 왜장 소서행장이 남대문으로 입성했기 때문이다. 동대문이 보물 1호로 지정된 건 더욱 가관이다. 동대문은 가등청정이 한양으로 입성할 때 들어온 문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에도 국보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답변이다. 이러한 수치스런 역사의 질곡을 알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남대문 국보 1호 해지요청을 문화재청에 올렸다.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문화재청의 답변은 위와 같았다.

우리들이 일상 쓰는 언어이며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한글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든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세종실록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글 창제를 집현전 학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훈민정음을 반포하자 부제학 최만리를 중심으로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한 사람들이 집현전 학사들이다. 그러면 세종 혼자 한글을 만들었을까? 세종25년 한글 창제 시기에는 세종이 건강이 좋지 않아 경연에도 참석하지 못할 때였다. 그 당시 명나라에 사대 하면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요즘 미국 몰래 핵무기를 만드는 일과 같은 것이었다. 한글 창제는 세종의 비밀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그 임무를 수행한 분이 김수온의 형 신미대사이다. 태조 이성계 곁에 무학대사가 있었다면 세종대왕 곁에는 신미대사가 있었다. 세종은 신미대사에게는 대궐에 말을 타고 출입할 수 있는 특혜를 내렸다. 경복궁에 내불당을 짓고 신미대사에게 법요를 맡겼으며 임종을 앞두고는 침전에 불려 스승의 예를 갖추고 호를 내렸다. 선교종 도총섭 밀전정 법 비지쌍운 우국이세 원용무애 혜각존자. 세종대왕이 임종을 앞두고 신미대사에게 내린 최고의 승직이다. 그 중 우국이세는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다.

신미대사는 고려말 천축의 고승 지공스님이 전해준 범자대장경과 밀교대장경을 보고 티벳어와 범어에 통달하였다. 세종의 뜻을 받들어 속리산 복천암에서 한글 자, 모음 28자를 정리한 것이다. 이제까지 한글창제는 비밀에 쌓여 있었다. 역사의 안개를 걷어 내고 신미대사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세종실록을 근거하여 철저한 문헌 기록과 실물자료에 의지하여 한글 창제의 비밀을 밝혀낸다. 그 주인공은 정찬주 작가이다.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그 절은 법주사 복천암이다. 복천암에는 세종대왕이 직접 시주한 아미타 삼존불이 전해진다. 신미대사는 이불재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불재는 정찬주 작가의 집필실이다. 화순 쌍봉사 건너편에 있다. 우리 시대의 뛰어난 소설가 조정래는 추천의 글에서 말한다. .. 세계 언어학자들이 제일로 꼽는 문자 한글. 한글 창제에는 그 동안 의문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큰 수수께끼 하나가 풀렸다. 정찬주 작가는 천강에 비친 달을 통해 범어를 통달한 신미대사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을 탄생시켰음을 보여 준다. 작가는 소설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확대 시키는 동시에 지적 감동에 취하게 하는 큰일을 해냈다.

## 2. 세종은 찬불 시인 이었다.

세종대왕의 깊은 불교이해와 불심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바로 세종실록이다. 석가모니의 일대기 석보상절을 읽고 감동하여 읊은 월인천강지곡은 불교 역사에서 뛰어난 찬불문학이며 찬불가이다. 세종의 불심을 더욱 깊이 들여다 볼수 있는 기록은 사리영응기이다. 세종 31년 경복궁 안에 내불당을 건립하고 삼존불을 봉안하였다. 황금으로 조성한 삼존불상 봉안 일주일 전부터 팔재계를 받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모시는 불사를 준비하였다. 세종은 나라에 영을 내려 모든 관원에게 형벌, 살인, 도살을 금지시켰다. 내불당 낙성식 날에는 신미대사를 비롯한 고승대덕 51인을 초대하여 법요를 주관하게 하였다. 수양대군 이유에게 범패 악보를 받들게 하고 국악기를 잡은 이가 45인, 죽간자를 잡은 이가 2인, 노래하는 자가 10인, 동자로 꽃을 들고 춤추는 이가 10인 이었다. 10명의 동자들은 푸른 연꽃. 흰 연꽃. 노란 연꽃. 붉은 연꽃. 노란 모란. 붉은 모란. 흰 모란. 노란 작약. 붉은 작약. 흰 작약을 잡고 화려한 관현악과 우렁찬 범패가락에 맞추어 극락의 춤을 부처님 전에 공양하였다. 주상께서 효령대군 이보. 이구. 이유. 영웅대군 이엄 등에게 명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가게 하였다. 불상이 교태전에서 정원을 거쳐 현무문으로 나와 절로 향하니 꽃을 뿌리고 당번을 세우고 법라를 불고 법고를 울리며 범패를 열창하니 그 신묘한 장엄과 하늘 음악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삼존불의 점안이 끝나고 설법자리를 펴고 낙성식을 하였다. 세종은 안평대군 이용과 이엄을 불러 너희는 곤룡포 2벌. 침수향 1봉지를 받들고 가서 세존께 올려라. 그리고 신미대사와 스님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효성이 어찌 감히 부처님의 영감에 합격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대덕들의 법력에 의지하여 감응을 얻는다면 역시 가신 분을 천도하는 마음에 만족하지 않겠는가? 불사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오늘이 아니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오늘 밤에 정성으로 간절히 애걸하기를 부지런히 하리라. 세종대왕이 내불당을 건립하고 낙성식과 삼존불 점안불사를 병행하면서 준비 시킨 내용과 그 자리에서 했던 말씀이 사리 영응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세종대왕의 발원을 들은 대중들이 대왕의 서원이 과거 보살들의 큰 서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존의 자비는 사물에 대응하여 나타남이 달이 강물에 찍히는 것 같고 골짜기가 메아리로 응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중들이 정수리와 팔뚝에 연비하고 참회하면서 삼존불께 기도하니 모두 261인이었다. 안평대군 이용과

*귀의삼보...삼보님께 귀의 합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삼보님  
수승한 그 공덕 끝이 없어라  
크나큰 평온과 대자대비로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하시네  
내 이제 마음 바쳐 귀의하오니  
전도된 업장 소멸케 하소서*

7곡 9장의 찬불가사중에 9장 1절의 가사내용이다. 세종의 깊은 불심과 심오한 불교이해를 엿볼 수 있다. 세종은 고려의 향악과 불교음악을 정비하여 한국적 불교음악을 재현한 호불. 호법의 성군이였다.

신미대사가 곤룡포를 올리고 수양대군 이유가 향을 올리니 범패 한곡조가 석가모니불을 장엄하게 불렀다. 징과 북이 점점 빨라지며 대중들의 염불소리도 고조되어 염불삼매에 빠져들었다. 그때 대중들이 불전에 빛이 난다. 하여 바라보니 사리탑 앞에 사리 2과가 출현하여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특이한 향기가 진동하여 모든 사람들이 극락의 향기와 불공덕을 체험하였다.

세종은 곧바로 최읍에게 명하여 곤룡단 2필과 채색비단 2필을 불사리에 공양하였다. 아울러 그 자리에 함께 한 대중들에게도 견직천을 선물하였다. 대중들이 함께 발원하였다. 우리들은 오늘 성상의 은혜로운 덕을 입어 친히 세존을 예배하고 공양할 수 있었으니 아난. 가섭과 무엇이 다르오리

까? 이 도량의 대중들은 미혹을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고 여래의 지혜바다에 들어가기를 발원합니다. 이에 서로 서로 향을 바치고 분신사리에 예배하였다. 세존과 보살. 팔부신장을 체험한 기쁨으로 스님과 신도들이 서로 마주보며 큰절을 올렸다.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이 재현된 듯한 감동이 일어난다. 세종대왕이 내불당 낙성식과 삼존불 점안행사를 지극한 불심으로 장엄하게 받드는 모습이 그 법회에 함께 참여 하는 듯 생생하게 전해진다. 조선 초기 서거정. 강희맹과 함께 3대 문장가로 꼽히는 김수온이 세종의 명을 받아 직접 기록으로 남긴 것이 동국대 도서관 소장 사리영응기이다. 삼존불 점안식을 준비하면서 세종은 자신이 직접 곡을 쓰고 작시한 7곡 9장의 찬불가를 연주하였다. 7곡 9장은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법하실 때 7처 9회 설법을 인용한 것이다. 세종의 불심 뿐 아니라 불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엿볼 수 있다.